



강원북부하나센터에 컴퓨터 등 지원

김경재 총재, 주복용 회장 등 30여 명 참석... 북한이탈주민 교육용



◇김경재 총재를 비롯해 주복용 회장과 강원북부하나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14일 춘천시 강원자유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사업 지원품 증정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맹은 14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지부에서 운영하는 강원북부하나센터에 컴퓨터 5대, 다기능 복합기 1대를 증정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재 총재를 비롯해 주복용 회

장, 강원북부하나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강원북부하나센터의 컴퓨터 교육실에 설치해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컴퓨터 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경재 총재는 춘천시 삼천동 강원자유회관에서 있는 전달식에 참석해 “탈북주민 여러분이 아말로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데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통일선봉대”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국자유총연맹은 강원북부하나센터를 통해 탈북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꾸준히 지원하여 ‘작은 통일’의 결실을 맺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맹 산하 강원도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통일부와 강원도로부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

정돼 강원북부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강원북부하나센터는 지난해 전국 23개 하나센터 중 상위권의 평가를 받는 등 탈북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알림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격주간 인터넷판(홈페이지)으로 발행해 오던 <KFF뉴스>가 172호(7월 15일자)부터 지면으로 인쇄 발행됩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성명서

한미동맹 적신호는 국가 비상사태, 6·25에서 희생한 5만 미군 잊지 말아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지난 6월 10일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식이 반미단체들의 외압으로 파행을 빚고, 사드(THAAD)와 관련 미국 내 반한감정의 고조 등 일련의 사태를 한미동맹의 적신호로 판단,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1.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과 임·직원들은 6·25 당시 제일 먼저 파병돼 7천여 병력을 희생하며 자유수호에 앞장섰으며, 휴전 후 60여년 동안 의정부를 지켜준 미2사단의 용맹함과 자유를 위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1. 우리는 이 외에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과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THAAD)배치를 망설인다는 폭스 뉴스(FOX NEWS) 보도가 나가자 미국 시청자들이 연일 게시판에 반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정부에 이러한 미국 내 반한정서를 적절히 해소할 외교적 대안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역사상 말 뿐인 동맹, 위기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동맹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경험에 비추어, 1950년 6·25 동란에서 5만 미군의 희생을 감수하고 한국을 도운 미국이야말로 가장 믿음직한 동맹국이라 확신한다.
1. 우리는 창립 이래 일관되게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초석으로 강조해 왔으나 아직도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들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반미세력들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한다.
1. 최근 추락한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를 정탐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사드가 그들의 핵무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명확한 반증으로, 현 시간 이후 사드의 효용성을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제 더 이상의 '사드 반대'는 북한 무인정찰기를 지지하는 안보 반대로 규정한다.

2017년 6월 14일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

350만 회원 일동

성명서

“국가안보를 두고 타협은 없다” 문재인 정부 방향 옳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6월 8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발표된 “안보에 여야가 따로 일수 없으며”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을 지지하며, 보다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우리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일차적으로 국제사회를 협박해 체제보장과 경제원조를 받아내고 궁극적으로 는 대한민국을 우방으로부터 고립시켜 무혈입성하려는 것이므로 과거 거의 해 목은 감정과 호불호를 과감히 떨쳐내고 한미동맹의 수호를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해 줄 것을 호소한다.
1.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국민통합으로 순국선열의 희생에 보답할 것을 350만 회원과 전 국민에게 호소해온 바, “안보에 이념은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초석임을 천명한다.
1. 우리는 국가안보야말로 모든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창립 이래 일관되게 설파해온바, 국가 안보문제를 정략적·파당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결연한 수호의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원칙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2017년 6월 8일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

350만 회원 일동